CONDERI

CONDERI DAILY INSIGHT | 일일 인사이트 리포트 | 대외 공개판

금리는 오르고 회사는 사라진다: 2027년 예산을 쓰는 창업자의 3일

Rates Rise, the Company Goes: Three Days That Set the 2027 Budget

본 리포트의 독자 및 활용 가이드

이 리포트는 2026년 11월 11일부터 14일 조간까지의 뉴욕·서울 시장, 금리와 재정, 국내 고용과 벤처 자금,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벌어진 변화를 창업가·경영진·투자자·인사 담당자가 함께 읽도록 구조화한 일일 산업 인사이트입니다. 모든 수치는 공개된 공식 출처(거래소·통계기관· 기업 공시·주요 언론 보도)로 검증했고, 확정치와 추정치를 구분해 표기했습니다. 이번 호의 관찰은 하나입니다 — **자금조달 비용이 오르는 국면에서 기업의 가치는 '성장 서사'가 아니라 '서명된 계약과 현금 흐름'에서 매겨집니다.**

문서 정보 / Document Information

문서등록번호 Document No.	CONDERI-IR-2026-11-14
발행일자 Published	2026. 11. 14. (토) Saturday
권호 Volume	VOL. 2026-11-14
분석기간 Coverage	2026. 11. 11 ~ 11. 14 조간 (직전 3일)
배포구분 Distribution	Public | 일반공개
발행기관 Publisher	CONDERI AI산업전략연구실
조사·집필 Research	AI산업전략연구실

5.15%
미 10년물 금리(11-13)
주간 +27bp, 10월 이후 최고

4.0조$
엔비디아 시가총액
10월 초 5.8조에서 축소

−19.6만
10월 청년 취업자
48개월 연속 감소

1조5,902억
10월 스타트업 투자
역대 10월 최대, 상위 3건 54%

한 문장으로: 금리 5.15%의 세계에서, 성장 서사는 서명된 계약으로 대체된다

AI 설비투자 체인의 조정과 재정·물가발 금리 상승이 같은 주에 겹쳤고, 국내는 고용과 자본의 양극화가 동시에 깊어졌다

+2.15%
S&P500 주간 상승. 10월 초 이후 첫 주간 플러스, 7,535.72 마감

−13%
엔비디아 주간 낙폭. 2012년 이후 최장인 6주 연속 하락

5,290.53
코스피 11-13 종가(−0.98%). 장중 5,504.44까지 올랐다 반납

1,336.7원
원·달러 주간 종가(+6.0원). 달러지수는 19개월 최고

1. 지수는 주간으로 올랐고, 기술은 주간으로 빠졌다

11-13 뉴욕은 S&P500 7,535.72(−0.75%), 나스닥 25,050.29(−1.24%), 다우 52,221.80(−0.14%)으로 마감했습니다. 하루는 약했지만 주간으로는 S&P500 +2.15%, 나스닥 +1.92%, 다우 +1.83%로 10월 초 이후 첫 플러스 주간을 만들었습니다. 반면 반도체지수는 이날 −4%대였고, 엔비디아는 주간 −13%로 2012년 이후 가장 긴 6주 연속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지수를 떠받친 것은 유틸리티·에너지·금융이었고, 지수를 끌어내린 것은 여전히 AI 설비투자 체인**이었습니다.

2. 문제는 금리다

10월 생산자물가는 전월비 +0.3%로 예상(+0.4%)을 밑돌았지만 전년비 6.5%로 2022년 이후 가장 빠른 상승이었습니다. 미 10년물은 장중 5.17%, 종가 5.15%까지 올라 주간 +27bp, 2년물은 4.855%로 2024년 10월 이후 최대 주간 상승폭을 냈습니다. 선물시장은 12월 8~9일 회의에서 25bp 인상을 사실상 전제로 하고, 50bp 확률도 11%까지 반영했습니다(한 주 전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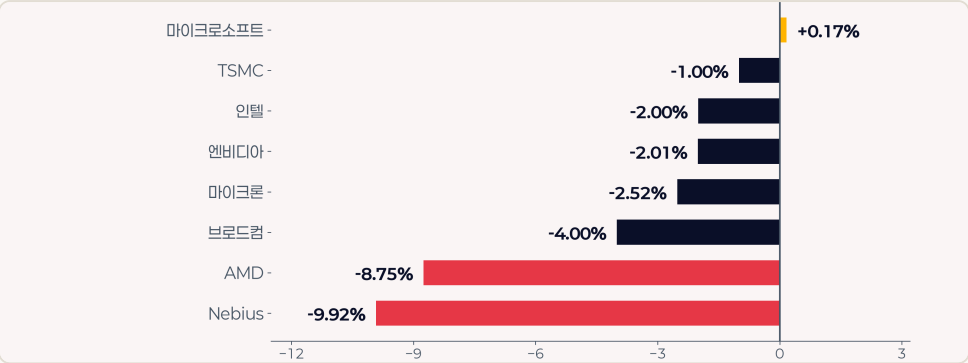
이번 호 결론 **자금조달 비용이 오르면, 만기가 짧고 담보가 약한 회사부터 순서대로 예산이 잘린다. 11-13의 뉴욕과 서울은 그 순서를 미리 보여준 하루였다**

5대 영역	11-11 ~ 11-14 핵심 신호	방향
에듀테크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 감원(최대 40명)·교과서 인력 36% 조정, 경기도 조건부 허용안	채택 시장 → 영업 시장
스타트업·창업	10월 투자 1조 5,902억 원(역대 10월 최대), 상위 3건이 54%	금액 회복·건수 정체
글로벌 기술	엔비디아 주간 −13%, 6주 연속 하락. 11-17 실적 대기	리더십 → 주문잔고
거시·금리	미 10년물 5.15%, PPI 6.5%, 12월 인상 사실상 확정	할인율 상향 고착
HR·채용	청년 취업자 −19.6만(48개월), 숙박·음식점 −13.7만	검증·교육으로 대체

I. 뉴욕: 지수는 주간으로 플러스, 반도체는 6주째 마이너스

기술주 조정과 금리 상승이 같은 주에 진행됐지만, 지수는 10월 초 이후 첫 주간 상승을 지켰다

지수	11-13 종가	일간	주간	해석
S&P500	7,535.72	−0.75%	+2.15%	11개 업종 중 8개 상승, 기술주가 지수 하락 주도
나스닥 종합	25,050.29	−1.24%	+1.92%	RSI 41.6, 주요 지수 중 가장 약한 모멘텀
다우	52,221.80	−0.14%	+1.83%	금융·산업재가 방어, 연초 이후 +8.65%



자료: 거래소 종가 및 주요 외신 보도 종합(2026-11-13). 미국 상장 종목의 당일 등락률

팔린 것: 다음 분기에 달린 매출

AMD −8.75%, 네비우스 −9.92%, 브로드컴 −4.0%, 마이크론 −2.52%, 엔비디아 −2.01%. 주문서가 다음 분기 실적에 달려 있는 회사들이 먼저 팔렸습니다.

남은 것: 이미 서명된 매출

마이크로소프트는 +0.17%로 버텼습니다. 11-17 엔비디아 실적에서 시장이 볼 것은 숫자보다 **주문잔고의 변화**입니다.

읽는 법 주간 수익률은 11-06 종가 대비입니다. 종목 등락률은 11-13 정규장 종가 기준이며, 장중 등락과 다를 수 있습니다.

II. 금리: 물가가 아니라 재정이 10년물을 밀었다

PPI는 예상을 밑돌았지만 6.5%의 전년비와 4,040억 달러 적자가 겹치며 장기금리는 5.15%로 올라섰다

6.5%
10월 생산자물가 전년비. 2022년 이후 최고, 전월비는 +0.3%로 예상 하회

5.15%
미 10년물 종가. 주간 +27bp, 장중 5.17%까지 상승

11%
12월 50bp 인상 선물 반영 확률. 한 주 전 0%에서 급등

4,040억$
10월 미국 재정적자. 전년 동월 대비 +42%

금리가 오른 이유는 물가만이 아니다

이번 주 채권시장은 두 개의 충격을 함께 받았습니다. 하나는 예상을 웃돈 소비자물가와 6.5%까지 올라선 생산자물가이고, 다른 하나는 10월 재정적자 4,040억 달러(+42%)입니다. 뉴욕 연은 윌리엄스 총재는 "통화정책은 아직 갈 길이 남았고 물가는 고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금리선물은 12월 25bp 인상을 100% 가까이 반영하고, 50bp 확률도 11%로 올라섰습니다. 주목할 점은 물가가 예상보다 부드러웠는데도 금리가 더 오른 것입니다 — **재정과 국채 공급이 물가와 별개로 장기금리를 밀어올리는 국면**입니다.

기업 자금조달로 옮겨붙는 경로

10년물 5.15%는 회사채 발행의 기준선입니다. AI 인프라 기업의 회사채 금리는 이미 투자등급과 하이일드의 경계를 흐리고 있습니다. QTS가 마이크로소프트 임차 데이터센터로 발행한 채권은 4월 5.7%에서 8월 7.2%대로 재가격됐고, 스페이스X의 4조 달러 규모 딜에서는 위험 구간 기대수익률이 8.75%까지 올라섰습니다.

구간	11-13 수준	주간 변화	의미
미 2년물	4.855%	2024-10 이후 최대 주간 상승	연준 경로 재가격
미 10년물	5.15%	+27bp	재정·물가 프리미엄 동시 반영
독일 10년물	3.38%	+3bp	유럽도 할인율 상향
영국 10년물	5.33%	+4bp	재정 리스크 프리미엄 지속
금(Gold)	3,885.70$	주간 −5.56%	실질금리 상승에 무이자 자산 약세
WTI	88.52$	주간 +1.92%	이란 협상 불확실성, 인플레 재점화 경로

예산 함의 **10년물 5.15%는 기업 예산의 할인율이다. 같은 현금흐름도 4.8%에서 5.15%로 할인하면 2028년 이후 가치가 5% 안팎 줄어든다**

III. 서울: 5,500을 찍고 5,290으로 돌아온 하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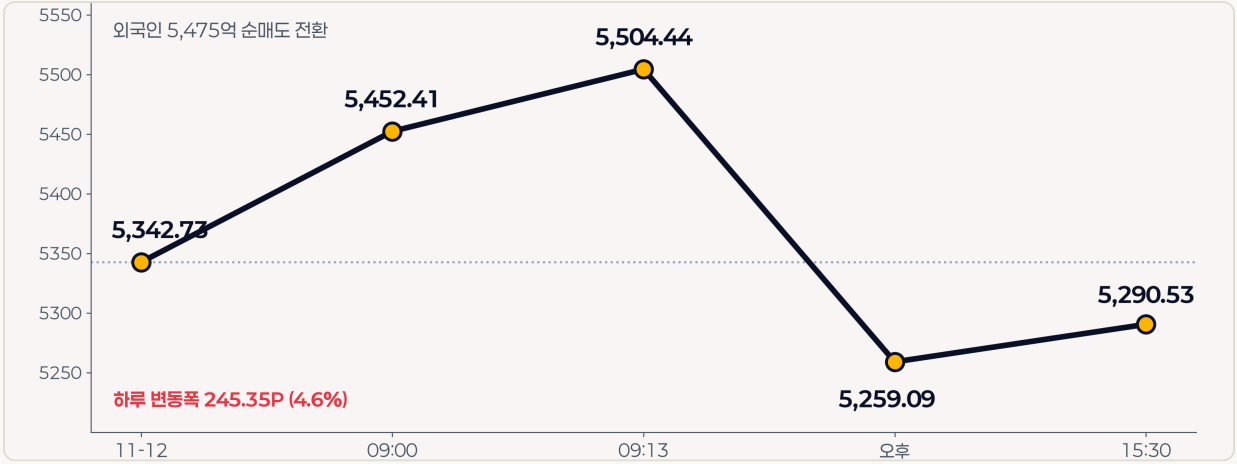
장 초반 2%대 급등은 오전에 소진됐고, 외국인 순매도 전환과 함께 반도체가 지수를 끌어내렸다

5,290.53
코스피 종가(−0.98%). 5,504.44까지 올랐다 5,259.09까지 밀린 하루

699.66
코스닥 종가(+0.45%). 기관 순매수에 강보합

−5,475억
외국인 유가증권 순매도. 4거래일 만에 매수 기조 종료

245.35P
코스피 장중 고점과 저점의 차이(4.6%)



자료: 한국거래소·주요 국내 매체 마감 보도(2026-11-13). 시가·고점·저점·종가는 공표 수치

수급이 뒤집힌 시각

외국인은 장 초반 2,000억~3,000억 원대 순매수로 지수를 밀어올렸다가, 오전 11시 40분을 전후해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종일 순매도는 5,475억 원(잠정 5,524억 원)입니다. 장중 고점 대비 245포인트를 반납한 것도, 원·달러가 6원 오른 1,336.7원으로 마감한 것도 같은 방향입니다.

오른 쪽과 내린 쪽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장중 하락 전환하며 지수를 끌어내렸고, 반대로 증권·건설·금융은 강했습니다. 신한지주는 5%대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이 플러스로 마감한 것도 같은 그림입니다 — **반도체에 실린 기대가 빠지고, 금리에 민감한 금융·가치주로 자리가 옮겨간 하루**였습니다.

IV. 노동: 총량은 4개월째 늘었고, 청년은 48개월째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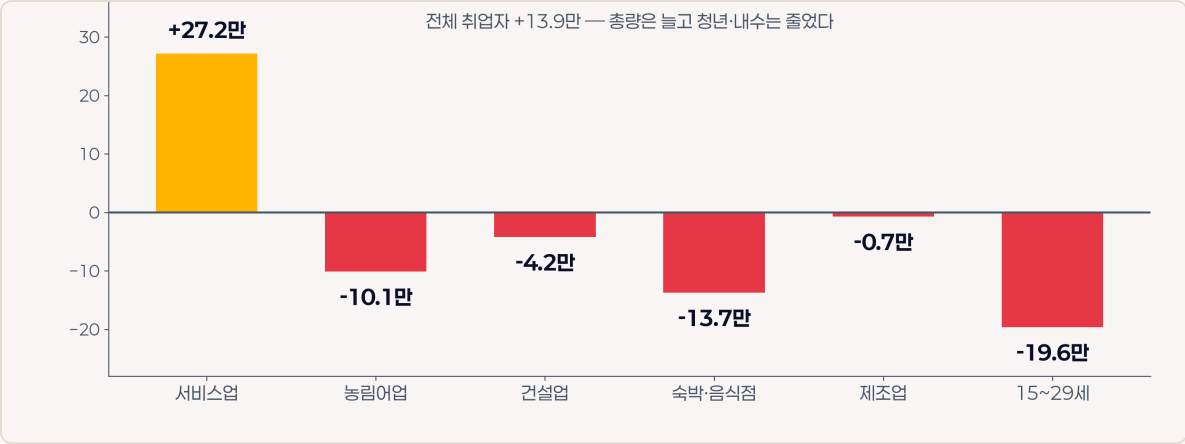
10월 취업자 +13.9만 명. 그러나 청년 고용률은 42.9%로 1.7%p 하락하고 숙박·음식점이 13.7만 명 줄었다

+13.9만
10월 전체 취업자 수 증가(전년동월비).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19.6만
15~29세 취업자. 48개월 연속 감소, 고용률 42.9%(−1.7%p)

−13.7만
숙박·음식점 취업자. 2021년 2월 이후 최대 감소

2.0%
10월 실업률(−0.2%p). 실업자 60.2만 명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6년 10월 고용동향」(2026-11-11) 및 재정경제부 그린북(11-13)

총량은 늘고, 청년은 빠졌다

취업자는 2,917만 9천 명으로 13만 9천 명 늘었지만, 청년층은 19만 6천 명 줄어 48개월째 감소했습니다. 청년 실업자도 1만 7천 명 줄었지만 이는 취업이 아니라 **구직 자체를 접은 사람이 늘었다는 뜻**입니다. 경제활동인구가 21만 3천 명 줄고 비경제활동인구가 7만 2천 명 늘었으며, '쉬었음'은 37만 1천 명입니다. 재학·수강은 13만 1천 명 늘었습니다.

기업이 읽어야 할 신호

신입을 뽑는 대신 교육·자격으로 사람을 미루는 구조가 4년째 고정됐습니다. 채용을 줄이는 동시에 '검증된 실무 역량'을 요구하는 시장에서, 기업의 채용 비용은 면접이 아니라 검증 설계로 옮겨갑니다. 숙박·음식점 감소는 소비 둔화가 고용에 닿은 첫 신호입니다.

V. 자본: 10월은 1조 5,902억 원, 그러나 절반은 한 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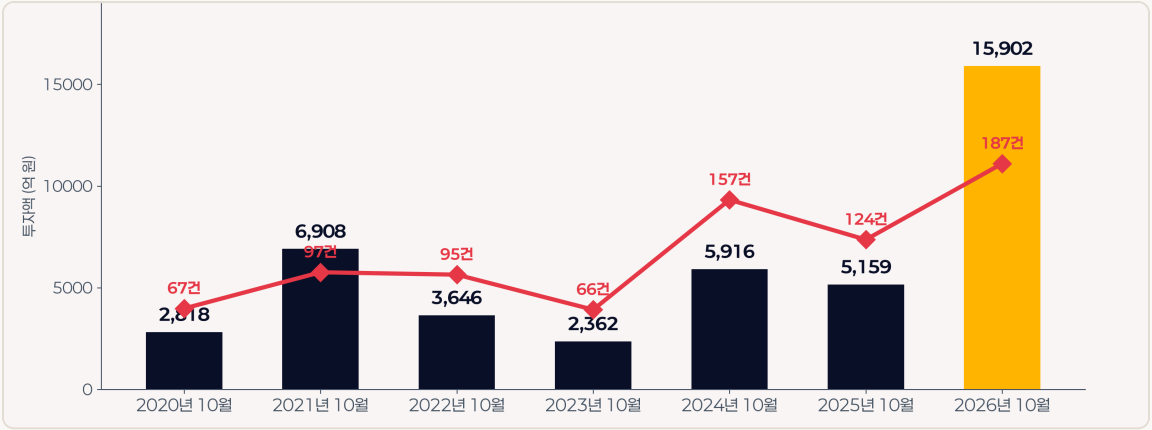
AI 반도체·로보틱스에 후기 대형 자금이 몰리고, 중간 단계 라운드와 비수도권은 얇아졌다

1조5,902억
10월 국내 스타트업 투자(스타트업레시피 집계). 전년동월비 +208.2%

187건
10월 투자 건수. 전년동월비 +50.8%, 역대 10월 최대

54%
상위 3건(퓨리오사AI·아시아마스터트레이드·드림랩스)의 금액 비중

86건·1조187억
더브이씨 집계 기준. 집계 방식에 따라 건수와 금액이 다르다



자료: 스타트업레시피 「월간 스타트업레시피」 2026년 10월호(억 원·건). 더브이씨 집계는 86건·1조187억 원으로 모집단이 다르다

숫자가 좋아 보이는 이유

10월 금액은 1조 5,902억 원으로 역대 10월 최대이고, 전년 동월의 3배를 넘습니다. 다만 퓨리오사AI 한 건(8,200억 원)이 전체의 51.6%입니다. 이를 제외하면 7,702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9.3%입니다. 건수로 보면 지원금(TIPS 등)이 187건 중 90건(48.1%)이고, 순수 민간 투자는 97건으로 전월(95건)과 비슷합니다.

창업자가 체감하는 온도

시리즈A는 15건, 프리A는 5건, 시리즈B는 5건으로 중간 단계가 얇아졌고, 시리즈C 8건·시리즈D 2건 등 후기 대형 라운드에 자금이 몰렸습니다. 서울·경기·인천이 금액의 82.3%입니다. **자금은 있는데,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는 계단이 좁아진 시장**입니다.

VI. 에듀테크: 교과서가 교육자료가 된 뒤, 사람이 먼저 줄었다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의 감원과 지자체의 조건부 허용이 같은 주에 확인됐다. 채택 시장에서 영업 시장으로

항목	확인된 사실	출처·시점
법적 지위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 학교장이 기준 확인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로 선택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 제21013호), 2025-08-14 시행
인력 구조조정	발행사들이 손실을 감수하고 인력을 유지하다 감축. 한 업체는 최대 40명 권고사직, 한 발행사는 교과서 인력 최대 36% 조정	언론 단독 보도, 2026-11-13
법적 다툼	발행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 진행	2026-11-13 보도
새 정책 방향	경기도교육청은 초등 단독 사용 제한·중학교 제한적·고등학교 출처 공개 전제 허용안을 공청회에 제시. 2027년 1월 5일 최종안 선포 예정	경기도교육청 공청회, 2026-11-09
지역 플랫폼	충남교육청은 AI 문해력 플랫폼 '온글'에 사고도구어 1,387개 기반 온독지수를 부여, 200여 권 등록. 2027년 종이책 구입 지원 연계 추진	충남교육청, 2026-11-06
교육과정	교육부는 16개 AI 과목을 현장 교사가 직접 집필하는 방식으로 전환. 2027년 시범 적용, 2028년 3월 정식 적용 목표	교육부, 2026-09-18

읽는 법: 플랫폼이 아니라 '채택'이 사라졌다

교과서 지위를 잃으면 전국 단위 채택이 사라지고, 학교별 선정이라는 3만 개의 영업으로 쪼개집니다. 매출이 예측 가능한 채택 시장에서 예측 불가능한 영업 시장으로 옮겨가면, 고정비가 큰 발행사의 손익분기점은 급격히 올라갑니다. 인력 감축은 그 산술의 결과입니다.

기회: 검증·문해·교사 도구

경기도의 '출처 공개·검증 전제 허용'과 충남의 '도서 난이도 지수'는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AI 사용 자체가 아니라 **사용의 증거를 남기는 층**이 시장이 됩니다. 학생 결과물의 출처·과정을 기록하고 교사가 확인 가능한 형태로 남기는 기능이 다음 구매 기준입니다.

결론 **전국 채택이 사라진 시장에서 남는 것은 두 가지다. 학교별 영업력, 그리고 사용의 증거를 남기는 제품력**

VII. 전략 매트릭스: 2027년 예산을 다시 쓰는 여섯 개의 축

금리·매출 질·인력·자본·교육 시장·환율의 11-13 신호를 예산 항목으로 번역했다

영역	11-13 신호	창업자 판단	2027 예산 반영
조달 비용	10년물 5.15%, 12월 인상 사실상 확정	변동금리·단기 만기 구조를 고정·장기로 교체	이자비용 +1.5~2.0%p 스트레스 테스트
매출 질	엔비디아 −2.0%, 마이크로소프트 +0.2%	계약·구독·선수금 비중을 지표로 공시	ARR 대비 이탈률·계약 잔존기간 점검
인력	청년 취업자 −19.6만, 채용 검증 비용 상승	신입 채용을 검증 프로그램으로 대체	교육·검증 예산 신설, 채용 예산 일부 전환
자본	10월 1.5조, 중간 라운드 15건	시리즈A 이후 런웨이 24개월 확보를 기본값으로	12개월 예산 + 12개월 비상계획 병행
교육 시장	AI 교과서 발행사 감원, 지자체 조건부 허용	전국 채택형이 아닌 학교·지자체 단위 영업	영업 사이클 2배 가정, 시범 사업 예산 확보
환율	1,336.7원, 달러지수 19개월 최고	달러 결제 원가·수입 부품 노출도 축소	환헤지 비율 50% 이상 검토

전략 원칙 금리가 오르는 해의 예산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아니라 '자금이 끊긴 6개월'을 기준으로 짜야 한다. 지금 시장이 값을 매기는 것은 성장률이 아니라 생존 가능 기간이다

VIII. 관찰 캘린더: 다음 6개 시점이 2027년 예산의 가정을 바꾼다

실적·상장·금리·학술·교육정책이 6주 안에 몰려 있다. 각 시점에서 확인할 것과 미리 준비할 것

시점	이벤트	왜 중요한가	준비할 것
11-17(화)	엔비디아 회계 3분기 실적	매출 1,089억 달러 컨센서스. 주문잔고와 4분기 가이던스가 AI 설비투자 사이클의 방향을 정한다	고객사·공급사 노출도 점검, 재고·발주 계획 조정
11-19(목) 전후	앤트로픽 상장 거래 개시	AI 매출의 실제 가격이 처음으로 공개 시장에서 매겨진다	경쟁·협력 관계 재점검, 모델 사용 단가 재협상 창구 확보
12-08~09	연방공개시장위원회	25bp 인상이 기본, 50bp 확률 11%. 점도표가 2027 상반기 경로를 제시	차입 만기·금리 상한 시나리오 3안 작성
12-31	APJIS 특별호 수정논문 마감	생성형 AI를 조직 행위자로 보는 연구가 본격화. 실무 언어로 번역될 시점	사내 AI 위임·책임 규정 초안 마련
2027-01-05	경기도 AX 교육 전환 최종안 발표	초·중·고 발달 단계별 AI 활용 기준의 사실상 전국 표준 후보	교육 고객사 대응 시나리오, 검증·기록 기능 요구 반영
2027-03	AI 교과목 정식 적용 준비	교사 집필 16개 과목. 교사용 도구·연수 수요가 먼저 열린다	교사 대상 파일럿 제안서 1월까지 완성
12-11	11월 고용동향	청년 고용률 42.9%의 두 달 연속 반등 여부가 채용 계획의 분기점	채용·교육 예산 배분 확정
1월 초	미국 연간 물가·재정 전망 발표	적자 42% 증가가 이어지면 장기금리 상단이 다시 열린다	차입 만기 구조 재설계
상시	AI 데이터센터 허가·모라토리엄	텍사스·오하이오 신임 주지사의 정책이 2028년 전력 수요를 바꾼다	전력·냉각 파트너 계약 조건 점검

시나리오 A — 금리가 5.3%를 넘을 때

12월 50bp 인상 확률이 30%를 넘고 10년물이 5.3%를 상회하면, 만기 2년 이내 단기 조달 비중이 높은 기업부터 차환 비용이 두 자릿수로 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7 예산은 신규 프로젝트 동결과 기존 계약의 수익성 재협상이 먼저입니다. 채용 계획은 검증·교육 예산으로 대체하는 편이 방어적입니다.

시나리오 B — 11-17 실적이 주문잔고를 확인해줄 때

엔비디아가 4분기 가이던스에서 주문잔고 증가를 확인하면 AI 설비투자 체인의 조정은 일단 멈춥니다. 이 경우 반도체·전력·냉각 장비의 2027 발주가 재개되고, 국내 협력사의 수주 잔고가 먼저 움직입니다. 다만 금리는 이 시나리오에서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 금리와 성장은 이번 사이클에서 따로 움직입니다.

면책 본 보고서는 공개 자료를 정리한 산업 분석으로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수치는 발표 기관의 잠정치일 수 있으며, 확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English Summary / 국문 요약의 영문판

A three-day window in which the price of money rose while the price of growth fell

Executive Summary (English)

Rates, not narratives, repriced risk this week. The S&P 500 closed at 7,535.72 on 13 November, down 0.75% on the day but up 2.15% for the week - its first weekly gain since early October - while the Philadelphia semiconductor index fell about 4% and Nvidia lost 13% on the week, its sixth consecutive weekly decline and the longest streak since 2012. Nvidia closed at $162.85, below a $4 trillion market capitalisation, ahead of its 17 November results where consensus expects $108.9 billion of revenue (+91% year over year).

Two forces are converging

First, the cost of capital. October producer prices rose 0.3% month over month, below the 0.4% consensus, but 6.5% year over year - the fastest since 2022 - while the October federal deficit reached $404 billion, up 42% from a year earlier. The 10-year Treasury yield closed at 5.15%, up 27 basis points on the week, and futures price an 11% chance of a 50 basis point hike in December, against zero a week ago. Second, the quality of revenue. Companies whose orders are signed and recurring held up (Microsoft +0.2%); companies whose orders depend on next quarter did not (AMD -8.75%, Nebius -9.92%, Broadcom -4.0%).

Korea: a 4.6% intraday range and a reversal in flows

The KOSPI opened at 5,452.41, touched 5,504.44 at 09:13, fell to 5,259.09 and closed at 5,290.53, down 0.98%. Foreign investors sold a net KRW 547.5 billion after three sessions of buying, and the won closed at 1,336.7 per dollar, 6.0 won weaker. The KOSDAQ rose 0.45% on institutional buying. Domestic data show the same split: total employment rose 139,000 in October, but youth employment fell 196,000 for a 48th consecutive month, and the youth employment rate dropped 1.7 percentage points to 42.9%.

$15.9tn
Korean startup funding in October (KRW 1.59 trillion), a record for the month

54%
Share of October funding taken by the top three rounds

0.3%
Direct US GDP exposure to AI capex, per The Economist

48mo
Consecutive monthly decline in Korean youth employment

One line **The market is no longer pricing growth stories. It is pricing signed contracts, cash flow duration and the cost of refinancing them**

맺음: 세 가지 숫자만 남긴다

금리 5.15%, 엔비디아 162.85달러, 청년 고용률 42.9% — 이 세 숫자가 다음 6주의 방향을 가른다

이번 호가 확인한 것

11-11부터 11-14까지 사흘의 시장은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자금의 가격이 오르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아직 계약되지 않은 성장이다.** 뉴욕에서는 주문서가 다음 분기에 달린 반도체가, 서울에서는 외국인 순매수가, 국내 노동시장에서는 청년 신입 자리가, 교육시장에서는 전국 채택을 전제한 사업모형이 먼저 조정됐습니다.

이번 호가 확인하지 못한 것

10월 스타트업 투자 통계는 집계 기관에 따라 187건·1조 5,902억 원과 86건·1조 187억 원으로 갈립니다. 모집단과 중복 제거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며, 본문은 두 수치를 모두 표기하고 추세 판단에는 공통된 방향(금액 급증·건수 정체)만 사용했습니다. 엔비디아 4분기 주문잔고와 앤트로픽 상장 가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표	최근 값	다음 확인 시점	판단 기준
미 10년물	5.15%	12-09 점도표	5.3% 돌파 여부 — 기업 조달 계획 재조정선
엔비디아 주가	162.85$	11-17 실적	주문잔고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을 웃도는가
코스피	5,290.53	11-17 이후 외국인 수급	5,200선 유지 여부
원·달러	1,336.7원	주간 종가	1,350원 접근 시 수입 원가 압력
청년 고용률	42.9%	12-11 고용동향	두 달 연속 반등 여부
AI 교과서 채택	학교별 선정	2027-01-05 경기 최종안	검증·기록 요건의 표준화 여부

발행 CONDERI AI산업전략연구실 | 문의 contact@conderi.com | 본 자료의 무단 전재를 금합니다.